

닌세이의 핑: 이로에 유약의 걸작

전시실 중앙에 전시된 한 쌍의 핑 향로는 17세기 유명한 도예가 노노무라 닌세이가 만든 걸작입니다. 핑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선명한 색채의 수컷과 은은한 색조의 암컷 한 쌍을 표현하고 있으며, 닌세이의 수많은 명작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닌세이는 17세기 중엽부터 후반에 걸쳐 교토에서 활동한 도예가로, 본명은 세이에몬입니다. 교토와 세토(현재의 기후현 남부) 지역의 가마에서 수련을 한 후, 교토 오무로에 있는 닌나지 절 문 앞에 자신의 가마를 만들고, 닌나지 절(仁和寺)의 ‘仁’과 본명인 세이에몬(清右兵衛)의 ‘清’을 따서 ‘닌세이(仁清)’라고 이름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익힌 우와에쓰케(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 표면에 다시 채색하여 가마에 넣고 저온으로 구워 내는 것) 기술은 교야키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의 교야키는 궁중 생활과 다도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닌세이의 핑 향로를 비롯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야키의 대부분은 다도에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향로는 다실에서 향을 피워 공간을 정화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닌세이는 뛰어난 도공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작품에 작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인 ‘도인’을 새기기 시작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습은 도공들이 더 이상 이름 없는 노동자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예술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상징합니다.

또, 닌세이는 가가번(현재의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의 구타니야키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번주 마에다 가문과 그 가신들은 닌세이의 작품 스타일을 귀하게 여겨 이 이로에 핑 향로를 비롯한 많은 작품을 소장했습니다.

깃털의 색채: 선명한 색감의 수평

닌세이는 물레작업의 명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손으로 빚는 기술과 에쓰케(도자기에 그림·무늬를 그려 다시 굽는 것), 유약 기술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핑의 길고 수평한 꼬리입니다. 이 형상에서는 점토가 무게로 인해 아래로 처지거나 굽는 과정에서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닌세이가 도기를 굽는 과정에서 꼬리를 수평으로 유지하는데 지지대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꼬리 안쪽에 2곳 남아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살짝 기울어진 목의 각도가 핑에게 긴장감과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이 양식을 만들기 위해 닌세이는 도기를 굽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점토의 수축과 뒤틀림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점토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장인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로의 상부(뚜껑)와 하부(몸체)가 꼭 맞아떨어지는 점도 닌세이의 뛰어난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또, 상부와 하부가

맞닿는 부분에도 연속적으로 깃털 문양을 그려서 이 부분의 미세한 틈이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로에 기법의 훌륭한 예는 사실적으로 표현된 이 수평의 깃털입니다. 이로에란 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에 색유로 밑그림을 그리고, 다시 저온에서 재벌구이하여 두 겹의 유약을 정착시키는 기법입니다. 굽는 과정에서 안료가 녹거나 색이 변하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특성과 온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닌세이 시대에는 이로에 기법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평의 깃털에 만화경 같은 색조를 재현한 닌세이의 기술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이로에 평 향로가 국보로 지정된 것은 1951 년인데, 그 과정에는 약간 독특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17 세기 말에서 18 세기 초, 평 향로를 소유하고 있던 마에다가문은 이 작품을 자신에게 하사했습니다. 그 후손은 19 세기 말에 이 평 향로를 상인 가문인 야마카와 가문에 매각했습니다. 야마카와 가문에서는 이 평 향로를 매우 소중히 여겨 실제로 이 향로를 본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정부는 평 향로를 국보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지만, 야마카와 가문은 지정에 따른 일반 공개와 기념식 참석을 위해 평 향로를 도쿄로 옮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평 향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